



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말해요

욥기 3장 1-10절

우리가 일 년 중 가장
기다리는 날은 아마 생일날일 거예요.



욥의 믿음을 의심했던 사탄은
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했어요.
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.



끔찍한 소식이 한꺼번에 밀어닥치자 견딜 수 없었던
몹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으며 슬퍼했어요.



하나님은 없어!



사탄은 자꾸 **욥**의 **믿음**을 **의심**하며,
이번에는 **욥**의 **몸**을 **병**들게 하면
하나님을 **저주**하게 될 거라고 **우겼어요**.

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
죽어 버리라고 막말을 할 정도였어요.



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.
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서,
*‘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’*며 마구 울었어요.





지금 **웁**처럼 **어려운**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
함께해달라고 **하나님**에게 **기도**해요.